



전남 해남군에
국내 최대규모
태양광단지 짓는다
L1

metro®

Life

저당소스
구매금증
장류도 가세
L4



장애인 꿈 돕고, 지구 생태 살리고... 미래 향한 '맑은 발자국'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코웨이

◆장애인 체육·예술 활동 적극 지원

지난 7월20일 오후 5시30분, 제주시 오라일동 한라체육관.

제13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국제초청휠체어농구대회' 결승전에서 코웨이 블루윙스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맞붙었다. 경기 초반엔 홈팀인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세를 잡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코웨이 블루윙스가 안정적인 페이스를 되찾고 추격하기 시작했다.

코웨이 블루윙스는 김호용 선수와곽준성 선수가 각각 20점, 김상열 선수가 13점을 넣으며 공격을 주도해 역전에 성공하며 최종 스코어 65대59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 대회에서 코웨이 블루윙스 김영무 감독은 우수감독상을, 곽준성 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코웨이 블루윙스는 지난 2024년에도 아시아-오세아니아 클럽교류전에서 우승한 데 이번에도 국제무대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국내에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팀이 됐다.

코웨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2022년에 블루윙스 휠체어농구단을 창단했다. 블루윙스는 국내 6개 휠체어농구 실업팀 가운데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팀이다.

휠체어농구 국가대표를 거친 김영무 감독은 2명의 코치, 10명의 선수와 함께 블루윙스를 국내 최고의 팀으로 키웠다.

블루윙스의 슬로건은 'Breaking Stereotypes' (고정관념 파괴)이다. 휠체어농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편견을 없애고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통합스포츠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코웨이는 블루윙스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휠체어농구 종목 활성화와 미래선수 육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다.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유망주 육성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신인 선수 공개 모집·신규 선수 양성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 스포츠 저변 확대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농구단은 비시즌 기간에도 다양한 교육기관과 협력해 휠체어농구 체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코웨이의 사회공헌은 예술 분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코웨이 '물빛합창단'은 음악 전공자, 뮤지컬 배우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중증 시각장애 예술인으로 구성된 혼성 합창단이다. 합창단원을 이끌어갈 합창진 지휘자를 위촉하고 단원 전원이 꾸준히 공연



과 연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물빛합창단은 창단 1년 만에 서울장애인합창예술제에서 1위를 차지, 서울지역 대표로 본선 전국 대회에 참가해 국무총리상인 금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면서 "금상 수상에 이어 2025년에는 같은 대회에서 대상을 거머쥐며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리버플로킹, 청정학교 교실숲 등 친환경 프로젝트 실천

'Good Wave for People & Environment'를 사회공헌 미션으로 정한 코웨이의 행보는 환경보호 문화 전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웨이는 일상 속 실천부터 생태계 복원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대중의 참여와 공감을 넓혀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2022년 이후 매년 열고 있는 '코웨이 리버플로킹 캠페인'이다.

고객 참여형 캠페인은 물이 있는 곳 주변에서 달리기나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으로, 강물과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고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했다. 올해 5회를 맞은 리버플로킹 캠페인은 누적으로 6800명

이상이 참가하며 일상 속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인식을 심어주는 '코웨이 청정학교 교실숲'도 대표적인 친환경 프로젝트다. 임직원 봉사단과 함께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식물을 기부해 학생들이 식물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환경 교육을 진행한다.

코웨이는 지난 2022년부터 전국 8개 학교에 멸종위기식물을 기부하며 환경보호 인식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도심 속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서울 구로구 본사 지타워 3층 옥외 공간과 서울 방화초에 각각 '코웨이 생태숲'도 조성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산립청이 지정한 멸종위기 식물을 식재해 도심 생태계를 회복하고 야생 동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이다. 코웨이는 지금까지 교실숲 및 생태숲 프로젝트를 통해 총 6171 그루의 멸종위기 식물을 기부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EM 흙공 던지기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EM 흙공은 수질을 정화하고 악취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친환경 소재로 하천 생태계 복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환경 개선



11 지난 7월 20일 제주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13회 제주도지사배 국제초청휠체어농구대회' 결승전에서 코웨이 블루윙스 오용석 선수가 득점을 시도하고 있다.

12 코웨이 임직원 봉사자들과 초등학생들이 '청정학교 교실숲 제7호' 조성을 기념해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코웨이

휠체어 농구단 '블루윙스' 창단
국내외 경거서 뛰어난 기량 뽐내
장애인 편견 깨고 스포츠 가치 전달
시각장애인 합창단 꾸려 예술 지원

매년 고객 참여 '리버플로킹' 열어
초등학교 찾아 어린이 친환경 교육

2050년 넷제로... 친환경 설비 확충
'컨트롤 타워' ESG 위원회 운영 등
내실있는 ESG 경영 성과 인정받아

과 탄소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환경과 사람을 사회공헌의 핵심 주제로 삼고 다양한 대내외 ESG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며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코웨이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50년까지 100% 탄소 중립 달성 목표

코웨이는 환경가전 전문기업에 걸맞게 '환경을 건강하게, 사람을 행복하게'를 환경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06년 환경경영 선포 ▲2012년 환경경영 방침 수립 등을 거쳐 기후 변화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최근엔 ▲2050년 탄소중립(Net-zero) ▲신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선언하고 2033년까지 2023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2050년까지 100%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수립했다.

지난 2021년에는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신설했다.

코웨이 이길연 ESG위원회 위원장은 '2025 코웨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ESG위원회는 단순한 현황 보고를 넘어 중장기 전략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핵심

과제 추진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코웨이 ESG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독 기능을 통해 ESG 경영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코웨이는 한국ESG기준원에서 주관하는 ESG 통합 평가에서 3년 연속 통합 A 등급을 획득했다. 글로벌 ESG 평가 지표인 2024 MSCI ESG 평가에선 AA 등급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글로벌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이 선정하는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Dow Jones Best-in-Class, DJBIC)' 아시아파시픽 지수에 13년 연속 편입되며 ESG 경영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서장원 코웨이 대표는 "최근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관리 강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은 기업에 새로운 도전과 책임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코웨이는 2050년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체계(Closed-loop)를 고도화해 양산 제품에 재활용 소재 적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 임팩트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남자 배구, 일본 3-1 꺾고 동아시아선수권대회 2연패

▲'배구여제' 김연경, 아시아배구연맹 초대 공로상... "다음 세대 위해 노력하겠다" /사진 뉴시스

▲MLB 애틀랜타 김하성, 연장전 대주자로 결승 득점

▲오승환 사로잡은 박영현·김택연·조병현... "더 성장하면 MLB 진출할 수 있다"

▲여자 수영, 박희경 여자 자유형 400m 한국 신기록 '4분09초65'

▲스페인으로 돌아간 이강인, 아틀레티코서 어떤 역할 맡을까